

‘비애의 늪’에서 키워낸 허무의 ‘독(毒)’

공광규 · 함민복 · 박라연의 시집을 읽고

고미숙

문학평론가

‘진부한 너무나도 진부한’ 한 해가 또 시작되었다. 올해도 변함없이 자본의 휘황한 물결이 거리를 뒤덮을 것이고, 현란한 이미지와 기호들이 허공을 배회할 것이다. 그럼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남루한 일상의 그림자를 쇠사슬처럼 끌고 다닐 것이고, 풍요와 번영의 ‘아우라’ 뒤에 자리한, 저 아득한 실존적 공허함에 시달릴 터이다.

그리하여 97년도 단지 세기말에 연대기적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의미도 감동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. 너무 비관적이라고? 그러나 절망도 때로는 힘이 되는 법. 아니, 황폐한 욕망의 파편들이 지배하는 이 시대의 삶에 진정으로 절망하지 않고서 어찌 전복의 희망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?

새해 벽두에 읽은 세 권의 시집에 하나같이 깊은 비애가 흐르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. 물론 이들이 노래하는 비애의 원천은 서로 같지 않다. 그러나 그 정체가 무엇이든 시인들의 예민한 추수는 이 시대의 삶에 드리운 형언할 길 없는 슬픔과 상실감에 뿌리내리고 있다.

‘적’과의 동침, 그 쓰러린 비애

공광규의 시집 《지독한 불륜》(실천문학사)을 감싸고 도는 비애의 정체는 비교적 명료하다. 그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여전히(!) 자본과 권력의 ‘지독한 불륜’이 횡행하고 있는 세상임을 말하고 있다. 지난 80년대의 그 격렬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“기다리는 사람 오지 않고/역사의 정원에는 수없이 잘린 싹들만 남았을 따름이다.

그렇다고 이 시집이 이 ‘불륜’의 현장을 고발하는데 바쳐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. 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“사랑도 없이 씩어빠진 성기로” 그 불륜의 적들과 동침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성찰이다. 그의 자조(自嘲)는 참으로 집요한 데가 있다. “땀 뻘뻘 흘러며 느릿느릿/더운 아스팔트 위 지나”는 “구더기 한 마리”, 혹은 “흰 와이셔츠에 벵타이 맨/비굴한 개 한 마리”가 바로 자본에 기생하고 있는 자신의 초상이다.

더 나아가, “내가 지나온 길은/실직과 실연과 실패의 사막/목구멍 하나와 자지 끝 거품 같은 욕망이/내 생의 전부였다”이러저리



새해 벽두에 읽은 세 권의 시집에 하나같이 비애가 흐르고 있다. 이들이 노래하는 비애의 원천은 같지 않다. 그러나 그 정체가 무엇이든 시인들의 예민한 추수는 이 시대의 삶에 드리운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뿌리내리고 있다.

채여 너덜너덜한/110근짜리 똥포대여/너를 걸레처럼 끌고/세상의 진흙탕 지나가/이렇듯 힘겹고 지겹구나”라는 탄식에 이르면 거의 마조히즘에 이를 정도이다.

그러나 사실 이 구차한 물결은 바로 자본의 공세에 무참하게 굴복하는 우리 모두의 얼굴 아닌가? 그리고 이 지독한 냉소의 미학이야말로 그의 시적 전략이다. 다시 말해, 그는 자본과 권력으로 향하는 분노를 내부로 돌려 자신을 한없이 추락시키고, 그 추락의 가속도를 역이용하여 다시 솟구쳐 오르고자 하는 것이다.

이 시집의 첫 작품인 〈뿌리의 힘〉에서 “나를 자르지 말라/내 칼이 먼저 상하리라/나는 뿌리가 있어/내 몸을 계속 키울 수 있나니/시간이 우리의 승패를 결정하리라”고 한 선언, 그리고 마지막 작품 〈견디는 앞세〉에

서 “다시 길을 묻는 수밖에/질문을 사냥개처럼 물고 늘어져/엄혹한 현실의 매질 앞/사소한 것에 화내거나 목숨 걸지 않고/내안의 나약함과 부도덕을 먼저 때려죽이며/부드럽게 견디는 수밖에”라고 한 고백은 마치 피비우스의 띠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. 요컨대, 그는 추락의 역학을 내공삼아 이 시대의 비애를 버텨내고자 하는 것이다.

깊은 슬픔이 빚어낸 허무의 ‘독’

“불현듯 추억이 나를 찾아와/기억의 길을 걸으면/고향과/어머니와/한 여자가/눈물로 만든 안경이 되네” 이 구절에는 함민복의 《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》(창작과비평사)를 통어하는 정서의 원천이 압축되어 있다. 그의 생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추억 속에는 고향과 어머니, 그리고 한 여인에 대한 지순하고도 격렬한 사랑이 자리하고 있다. 그는 이 대상들에 대한 그리움을 탁월한 시적 언어로 교직해낸다.

그 중에서도 이 구절, “폭포는 분수, 더는 못 견디게 그리워/푸른 하늘로 솟아올랐던, 물방울/산에, 내려, 모여, 저리 쏟아지는/내 마음, 언제 당신 마음 이리 많이 뿔어올랐던가/뿔어올랐던 당신 마음, 내 마음 되어/당신에게 쏟아지는 마음의 폭포//사랑, 다시 쏟아지고 싶어/쏟아지다/되돌아 피어나는 물보라”는 진정 눈부신 파도스를 창출해낸다. 그러나 사랑과 삶의 진정성은 추억의 저

편에만 존재할 뿐, 지금 이 지상에서는 결코 복원될 수 없다. 세상은 온통 ‘하늘을 날아온 아라비아 숫자’가 통치하고 있고, 자본의 거대한 입이 인간들의 영혼조차 삼켜버렸기 때문이다. 그리하여 그는 깊고도 순결한 슬픔의 힘을 옮겨 ‘독(毒)’을 키운다. 이 기세 등등한 세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인 ‘허무의 독’을.

이 시집의 절창인 〈대나무〉를 음미해보자. “공기, 그 만져지지 않는/허무가 나의 중심 뼈대” “나는 테러리스트/내 나이를 묻지 말게/뒤돌아 나이트를 헤아리는 그런 감상은/바람처럼 서걱서걱 베어먹은 지 오래/행여 내 죽어 창과 활이 되지 못하고/변절처럼 노래하는 약기가 되어도/한 가슴 후벼파고 마는 피리가 될지니/그래, 이 독한 마음으로/한평생 머리 굽히지 않고 살다가/황갈색 꽃을 머리에 이고/한 족속 일제히 자폭하고 야 말/나는 테러리스트”. 이 지독한 허무의 테러리즘이야말로 그가 이 세계의 비애와 대결하는 고도의 전략일 터.

박라연의 시집 《너에게 세들어 사는 동안》(문학과학지성사)은 앞의 두 시집에 비하면 지극히 부드럽고 섬세하다. 그것은 그녀가 비애를 느끼는 원천이 자본의 불모성이나 폭포수같은 그리움이 아니라, 일상의 진부함에 있기 때문이다. 그녀는 “하필 사람으로 태어나/생각이 몸을 지배할 때까지만 살지 못하고/몸이 생각을 버릴 때까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”을 견딜 수 없이 슬퍼한다.

허약한 일상의 갈피갈피에 숨어 있는 이 정체불명의 비애를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황홀한 비상을 꿈꾼다. 그 비상을 통해 그녀는 ‘삼라만상 무한천공을 엿보’고, ‘한 세상 다시 피어 불 붙히는 장미’ 한 송이가 되고자 한다. 비애의 순간들을 거름삼아 생성되는 이 ‘회고 붉은 꽃잎’의 세계는 아름답다. 그러나 세계와의 소통이 단절된 채 이루어지는 비상의 순간들이란 매혹적인 만큼이나 공허하지 않은가? 생의 도저한 비애와 대결하기에는 말이다. ◆

- 공광규 지음 《지독한 불륜》 실천문학사/B6변형/156면/4500원
- 함민복 지음 《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》 창작과비평사/B6변형/126면/4000원
- 박라연 지음 《너에게 세들어 사는 동안》 문학과학지성사/B6변형/96면/4000원